

독일 물가 쇼크가 쏘아올린 달러 초강세

■ 주간동향: 패리티 수준에 재차 근접한 유로

- ✓ 달러가 지난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.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9월 FOMC회의 금리인상 폭과 관련된 지역 연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이 달러 강세 심리를 자극함. 동시에 영국과 독일 물가 리스크 역시 달러 강세의 또 다른 밑거름으로 작용함
- ✓ 유로화 가치는 독일 7월 생산자물가 쇼크와 더불어 가뭄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부각으로 급락함
- ✓ 위안화 가치는 큰 폭의 약세를 보임. 경기 펀더멘탈 우려 부각으로 인한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일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전력부족과 조업중단 불확실성이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함
- ✓ 원/달러 환율도 연중 고점을 경신함. 달러 강세와 더불어 유로 및 위안화에 원화 가치가 연동하면서 지난주 원/달러 환율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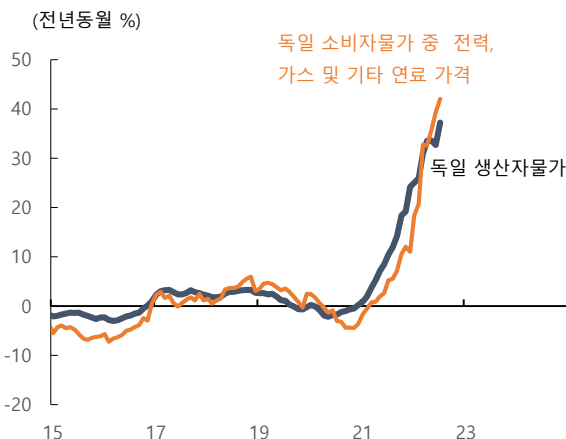
<표> 주요국 주간 환율 동향

	8월 19일 증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108.2	2.40	13.06
달러/유로	1.004	-2.16	-11.72
엔/달러	137.0	2.66	19.02
역외 위안/달러	6.836	1.45	7.53
원/달러	1325.9	1.80	11.54

■ 금주: 잭슨홀 미팅에 쏠린 눈. 유로화 패리티 수준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한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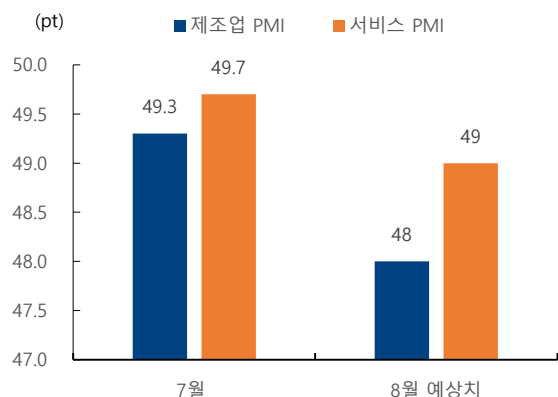
- ✓ 유로화 약세에 기반한 달러 초강세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임. 유로존의 경우 러-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악영향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임. 물가쇼크에 이어 제조업 지수의 쇼크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. 오는 23일 발표되는 독일 8월 S&P 제조업 및 서비스 지수는 전월에 이어 둔화세를 보이면서 위축국면(50선 이하)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. 독일 펀더멘탈 약화가 확인될 경우 유로화 가치 추가 하락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유로화가 패리티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음
- ✓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강세 흐름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26일 예정된 파월의장의 잭슨 홀 연설임. 파월의장이 '파월 피벗' 시그널을 재차 시장에 던져준다면 달러화 강세가 한풀 꺾일 수 있을 것임. 역으로 '파월 피벗' 관련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달러 초강세 현상의 지속 가능성이 높음
- ✓ 원/달러 환율의 1,350원선 위협도 가시권에 진입함. 달러화 강세와 더불어 위안화 역시 펀더멘탈 약화로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음은 원/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

생산자물가 쇼크를 기록한 독일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8월 독일 제조업 지표 역시 부진이 예상되고 있음



Compliance notice
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 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